

2007년 신지애 전성기… 여자가 처음 앞질러

첫 10억 도전 김비오로 본 골프 상금왕 역사



KPGA 상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비오가 23일 막하는 한국오픈에서 우승하면 남자 프로골프 사상 첫 상금 10억 원을 돌파하게 된다. 오른쪽 사진은 KPLGA 상금왕의 전성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 신지애.

스포츠, 경제로 읽다

20일부터 나흘간 충청남도 천안시 우정힐스 컨트리클럽(파71·3260야드)에서 열리는 코오롱 제64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는 남자골프 내셔널 타이틀 대회에 어울리는 가액의 상금이 걸려 있다. 총상금 13억5000만 원에 우승 상금은 무려 495000만 원에 달한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일반 대회 우승 상금의 3배 안팎 수준이다.

대회 결과에 따라 KPGA 코리안 투어에선 사상 최초 10억 원 상금왕이 탄생할 수 있다. 제네시스 상금 1위 김비오(32)의 현재 시즌 누적 상금액은 6억2680만9733원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그의 시즌 누적 상금은 10억7680만9733원이 된다.

현대 최고액은 7억9006만 원

상금 1위가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 만으로 KPGA 코리안 투어 역사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단일 시즌 최고 누적 상금 액은 2018년 박상현이 기록한 7억9006만6667 원이다. 국내 남자프로골프 첫 상금왕은 1978년 최상호가 차지했다. 당시 그가 거머쥔 돈은 4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지금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남자 첫 상금왕 최상호 400만원 미만
4년 후 여자 첫 상금왕 구옥희 125만원
20여 년 지나 신지애 6억·김경태 4억
2014년엔 김효주 12억·김승혁 5억
올 김비오 한국오픈 우승면 10억 돌파



한국 남자 프로골프 최초의 상금왕 최상호.

위상이 KPGA 코리안 투어보다 앞서지만, 40여 년 전만해도 남자프로골프 투어가 더 큰 규모를 자랑했다. 1982년 KPLGA 투어 첫 상금 왕인 고(故) 구옥희가 번 상금은 125만 원. 4년 전 최상호의 돈과 비교해도 적었다.

최근 20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남자프로골프 투어 상금왕의 상금액이 여자가 본격적으로 우승하기 시작한 때는 2007년이다. '골프 지존' 신지애(34)가 3년 연속 상금왕을 거머쥐던 시기 중 한 지점이다. 그 시절 대회 페인트장을 누비던 한 골프 관계자는 "신지애, 서희경(36) 등이 전성기였던 2000년대 중후반 KPLGA 투어가 가장 흥미로운 시절이기도 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근소한 차이로 앞치락뒤치락하던 남자프로골프 투어 상금왕의 상금에 차이는 2007년 약 2억3000만 원 수준으로 벌어졌다. 그해 KPGA 상금왕 김경태(36)가 4억4277만6667원을 벌어들였고, KPLGA 상금왕 신지애는 6억7454만1667원을 거머쥐었다.

김비오의 삶에 큰 기대감

벌어진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못했다. KPLGA 상금왕 선수가 KPGA 상금왕 선수에 비해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머물렀다. 투어 대회 수 차이의 결과이기도 했다. 2012년 김비오가 4억4400만 원, 김하늘(34)이 4억5889만8803원으로 격차가 거의 줄어들다시피 했지만, 이

후 다시 벌어졌다.

KPLGA는 2014년 KPLGA에 암도 당했다. 그해 KPLGA 상금왕 김승혁(36)은 5억8914만2333원을 벌어들었으나 김효주(27)가 무려 12억897만8590원을 벌었다. 김효주는 그해 대상과 상금왕, 평균최저타수상까지 훔쳤며 '골프 천재 소녀'로 불렸다. 김효주 이후 KPLGA 투어는 대회 수 등 더욱 외연을 확장하며 10억 원 대 상금왕을 4차례나 더 배출했다. 지난해 6승을 쓸어 담은 박민지(24)는 KPLGA 연대 단일 시즌 최고 상금액인 15억2137만4313원을 수확했다. 같은 해 KPLGA 상금왕 김수행(20)이 벌어들인 7억5493만6305원의 2배에 달한다.

KPGA 코리안 투어에서도 10억 원대 상금왕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쏟인다. 김비오가 우승할 경우 상금 부문은 물론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에서도 독주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대회 최민철(34) 이후 4년 만의 한국 선수 우승자 타이틀을 바라본다.

구자철(67) KPGA 회장은 2019년 말 당선 당시 "2023년까지 시즌 대회 수 25개 이상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10억 원대 상금왕을 배출하면, 대회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내년에 상금왕의 상금액 수준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KPLGA 투어와 비교해도 규모 면에서 그려 뒤지지 않게 된다. 박종민 기자 min@sportbiz.co.kr

고진영 세계 1위 유지… 임희정 34위

국내 여자골프 최고 권위 메이저대회 한국여자오픈 웹ไซ트(www.koropen.org)에 세계랭킹 34위로 올리된다. 고진영(27)은 19위를 유지했다.

임희정은 최근 발달된 여자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34위에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지난주 47위에서 13계단이나 상승했다. 그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포천시 포천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KPLGA 투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총상금 8억 원)에 출전한다.

한국여자오픈 우승으로 KPLGA 투어 상금 부문 2위(4억19만6000원)로 올라선 임희정은 내친 김에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그는 "사실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욕심은 내지 않으려 했는데 샷 각각이 좋아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해보니 싶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힐스 컨트리클럽은 전장이 깊고 바람이 많이 불어 쉽지 않은 코스다. 샷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아직까지 고통사고 후유증이 남아 있어 최대한 체력 회복에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레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니퍼 컵조(25·미국)는 16위에서 9위로 뛰어 올랐다. 세계랭킹 1~5위는 변동이 없었다. 고진영(27)이 1위를 유지했고, 넬리 코다(24·미국), 이민지(26·호주), 리디아고(25·뉴질랜드), 아티야 티파운(19·태국)이 뒤를 이었다. 김효주(27)는 10위, 박인비(34)는 11위, 김세영(29)은 12위에 랭크됐다.

박종민 기자 min@sportbiz.co.kr



Happy Business News

행복을 드리는 경제
감동을 주는 스포츠
재미가 넘치는 연예

'스마트한 신문' **한스경제**

